

동해라는 명칭은 기원전 37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다.

한상복

(국립수산업진흥원 어장환경과)

동해는 국제해양법상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만 있고 공해(公海)가 없는 폐쇄된 바다가기에 무슨 일이든지 연안국들과 서로 협의하고 협력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각 연안국들이 그들의 관할권내에 있는 바다를 어떻게 부르든지 상관할 바 아니지만 동해권역의 연안국들이 협력을 해야 할 때 전체가 합의하는 하나의 고유명사를 가질 필요가 있다. 현재 사용되는 국제언어는 영어가 대표적이므로 동해를 영어로 Japan Sea라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바다의 대표적 연안국인 한국에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서로 협의하여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야 협력을 기할 수 있다.

Japan Sea는 1787년 라 페루즈가 이 바다를 최초로 탐사한 후 명명된 것으로 1860년대에 이르러 널리 사용되었는데 특정연안국의 명칭이 들어있어 협력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니 좋은 이름이 아니다. 그래서 이 바다의 연안에서 실제로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 불렀던 이름을 추적해보니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기원전 37년부터 역사기록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삼국사기와 삼국사절요를 보면 동해가 뚜렷이 바다이름으로 나타난 경우가 8번 있었는데, 기원전 37년, 256년, 416년, 639년, 681년, 682년, 699년 음력 7월, 699년 음력 9월의 기록에서 이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 후 중국에서도 이 바다를 東海라고 부른 것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北海라고 불렀다.

東海라는 이름은 바다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이 되지 못하고 한쪽만의 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지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현재의 중국에서도 산둥성 사람들은 黃海를 여전히 東海라 부르고, 절강성 사람들은 東中國海를 東海라 부른다. 일본에서도 북서태평양의 일본쪽 바다를 東海라 부르고 있다. 그러므로, 東海는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바다를 나타내기도 하며, 하나의 바다일지라도 곳에 따라 西海도 될 수 있고, 南海도 될 수 있으며 北海도 될 수 있는 상대적인 이름일 수밖에 없다. 동해를 대표적인 국제언어인 영어로 East Sea라 하면 이것을 연안국 사람들의 위치에 따라 West Sea, South Sea, North Sea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음을 역사적 사실이 입증해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East Sea로 불리야 할 당위성이 기원전 37년부터 현재까지 있기도 하지만 동해영

역권의 발전을 위해 이를 양보하고 전체가 무리없이 수용할 수 있는 Orient Sea로 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우선 국내적으로 충분한 토론을 거친 뒤 통일을 기한 후 상대 연안국과 협의해야 한다. Orient Sea가 최선의 것이기는 하지만, 차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Blue Sea로 Yellow Sea와 더불어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주장의 단계를 뛰어 넘어 협상을 해야하며, 협상에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상대가 있음을 명심해서, 우리 스스로가 통일된 대안을 가져야 할 단계에 와 있다.